『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상관성 연구

유 수 연 (전북대)

< 목 차 >

1. 서론
2. 시간의 停滯로 인한 의식의 지체
3. 관계맺기의 실패와 무장소성
4. 결론

국문초록

서사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인물들은 시공간 속에서 행동하며 인과관계를 맺고 이들 인과적 관계들은 독자의 체험을 통해 다층적 의미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김약국의 딸들』은 조선의 개항기와 한일합방, 식민시기를 아우르는 60여 년의 방대한 시간 속에서 한 가문의 쇠락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약국의 딸들』은 '통영'이라는 공간과 다섯 딸들의 서사만이 해석의 주요인처럼 보인다. 작품의 해석을 위해 공간과 등장인물이 동원되었고, 이제 시간의 문제가 남겨졌다.

한 개인이 존재했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하루라는 시간을 '이야기' 할 것이고 이야기 속의 시간은 객관적인 모든 시간이 아닌 우리의 기억과 선택에 의해 이야기된 '시간'이다. 따라서 폴 리쾨르는 인간실존 그 자체의 의미를 서사성 안에서 찾고자 하였다. 역사성과 허구성을 모두 내포한 이야기된 시간을 통해 인간은 삶을 이해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루는 문제는 삶의 인식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www.kci.go.kr

『김약국의 딸들』은 60년 동안에 3대에 이르는 가족사가 연대기적으로 펼쳐지는 가족사 소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은 느껴지지 않는다. 작품 속의 시간 서술도 제1장에 압축되어 있다. 이러한 시간의 의미를 '서사적 시간' 개념을 통해 살펴본 결과 『김약국의 딸들』의 시간은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停滯性은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60년이라는 객관적 시간을 현재적 시간으로 지연시키고, 통영이라는 실제 공간의 장소감을 형성하고 있다.

추상적, 상징적 공간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며 대두된 인문지리학은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있다. 공간은 추상적이고 분화되지 않은 자유롭고 개방된 곳이지만 장소는 경험주체가 가치를 부여한 곳으로 구체적이고 상호적인 특성을 갖는다. 시간이 정체된 통영이라는 공간은 김약국집의 가족들에게 장소감이 상실된 곳이다. 인간은 관계맺기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 가며 살아간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자라면서는 형제, 친구, 동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며 발전이다. 그러나 통영이라는 장소는 이러한 관계맺기가 불가능한 장소이다.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관계 단절은 김약국의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아버지와 딸들의 관계맺기 역시 실패한다. 김약국의 딸들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통영이라는 장소를 떠나는 용빈과 용혜는 새로운 관계맺기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주제어 :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시간, 공간, 서사적 시간, 시간의 정체성(停滯性), 무장소성

www.kci.go.kr

1. 서론

『김약국의 딸들』은 박경리 최초의 전작 장편소설이다. 신문과 여러 잡지에 단편소설과 연재소설을 집필하던 박경리가 1962년 처음으로 『김약국의 딸들』을 전작 장편소설로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단편소설은 짧은 지면 때문에, 연재소설은 대중성의 확보와 단절성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독자층의 예술과 오락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하기에 작가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김약국의 딸들』은 박경리의 작가로서의 역량과 문제의식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약국의 딸들』에는 1864년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대원군이 집권하던 무렵부터 1930년까지 약 60년이 넘는 시간 속을 살아갔던 3대 가족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 작품은 6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 1장에 할아버지 세대인 김봉룡과 숙정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인 김약국(성수)과 어머니(한실댁)의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어지는 2장부터 6장까지 김약국집 다섯 딸들의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삶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다. 할머니에게서 아들에게로 그리고 손녀에게로 이어지는 비극의 유전은 『토지』와 『파시』 등의 작품과 상통하는 바 "여인의 한과 비극성"[1]을 보여주고 있다.

박경리 문학의 비극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2]가 있다. 김예니는 "박경리의 소설에도 낭만적 사랑의 좌절이 주는 비애나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를 경

1) 안남연, 「박경리, 그 비극의 미학」, 『여성문학연구』 4, 2000.

2) 최유찬, 「빅뱅이론과 생명사상으로 읽는 『토지』」, 『월간 말』, 1996. 12.
김만수, 「자신의 운명을 찾아가기」, 『현대문학의 현대적 해석8-박경리』,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류보선, 「비극성에서 한으로, 운명에서 역사로」, 『작가세계』 22, 1994.
안남연, 앞의 논문.
이상진, 「운명의 패러독스, 박경리 소설의 비극적 인간상」, 『현대소설연구』 56, 현대소설학회, 2014. 8.

www.kci.go.kr

험하면서 느끼는 좌절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비극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박경리 소설의 개성이라고 한다면 비극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물들의 태도가 운명을 수용하면서 패배적이지 않다"[3]라며 박경리 문학이 그리스 문학의 비극성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박경리 문학의 비극성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박경리 문학을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연구[4]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의 폭력성과 전후사회의 부조리성이 비극적 여성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작가론적인 관점[5]에서는 박경리 자신의 유년기와 가족사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박경리의 가족사는 작품에 종종 드러난다. 진주여고를 다니던 학창시절의 경험은 「환상의 시기」와 『토지』에, 6.25전쟁으로 남편을 불의에 잃은 경험은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다. 교통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은 처절함은 단편 「불신시대」에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된 어머니와의 갈등은 박경리 작품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박

3) 김예니, 「박경리 소설의 비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19-20면.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이 귀족이거나 비범한 능력, 높은 도덕적 결백성을 가진 인물이라면 현대의 비극적 서사양식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행동력과 표현력이 부족하며, 자신이 속하고 있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연민과 비애의 감정을 유발한다. 그리스 비극에서는 보통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자신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파국을 맞이하면서 운명의 불가항력과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운명까지도 수용하는 비극적 깨달음을 보여주는 한편 현대의 비극적 서사양식에서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항할 힘과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 어쩔 도리 없이 비극적 상황에 처하면서 비애감을 빚어낸다. 현대의 비극적 서사양식에서 드러나는 비애는 인간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숭고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위장된 자기연민이거나 사건과 거리를 두고 아이러니한 상황을 씁쓸하게 바라보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4) 김혜정, 「박경리 소설의 여성성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이금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가족 이데올로기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5) 김은철, 「박경리 시의 내면풍경」, 『한국문예비평연구』 4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12.
김정희, 「박경리의 『토지』연구 : 공동체의 형성과 해체 양상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www.kci.go.kr

경리에게 내재한 운명론적인 비극성이 작품에 투영되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굳이 '저자의 죽음'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작가를 떠난 작품은 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 수많은 의미를 창조해 낸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났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비극성의 심층적 근원을 탐색하는 문제는 박경리 문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박경리 문학의 비극성은 등장인물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배경을 통해 형상화되기도 한다. 특히 공간적 배경인 통영은 작가 박경리의 실제 고향이며, 『애가』(1958), 『김약국의 딸들』(1962), 『파시』(1964), 『토지』(1969~1994)의 공간적 배경이기도 하다. 박경리 작품 속에 나타나는 '통영'은 "돌아가고 싶은 곳이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곳"[6] "몽환적 이미지로 일시적인 안식을 주지만 사회적 모랄이나 금기가 깨어진 상상력의 공간"[7]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은영은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인 통영을 '장소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작가의 실제 장소 경험이 반영된 작품 속의 통영은 "고향이라는 고역"이며 "'진정한 장소감'이 상실된 곳으로 토포필리아와 토포포비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8] 있다고 분석한다. 작가의 실제 장소 경험이 서사적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간'의 문제가 남게 된다.

폴 리쾨르는 인간실존 그 자체의 의미를 서사성 안에서 찾고자 하였다. 인간의 파편화되고 분산된 시간경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되는가를 밝히려는 시도가 리쾨르의 이야기 해석학이다.[9] 리쾨르에게 시간은 '서사적 시간(이야기된 시간)'이다. 물리적 시간과 달리 텍스

---

6) 방금단, 「통영-그리움의 서사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파시』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5, 돈암어문학회, 2012, 214면.

7) 조윤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통영 공간의 상상력」, 『비평문학』 32, 한국비평문학회, 2009, 332면.

8) 최은영,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장소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7, 2014, 341면.

9)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하루라는 시간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야기 속의 시간은 객관적인 모든 시간이 아닌 우리의 기억과 선택에 의해 이야기된 '시간'이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결국 이야기의 형태로 지각된다.

www.kci.go.kr

트의 시간은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 범주의 간극을 매워주는 매개적 시간이다.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간인데 이 시간은 역사성과 허구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는 '이야기'인 셈이다.[10] 결국 시간의 '체험'이 이야기이고, 이야기를 통해 '체험'된 시간의 해석이 이야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체험'은 시간 구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하자면 시간 구조가 부합하고 일치하는 바로 그것으로서, 지향될 수 있을 뿐"이며, "시간을 구조화하는 목적은 바로 시간을 창조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야기하는 시간과 이야기되는 시간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다."[11]

시간과 공간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특히 서사 속의 인물들은 시공간 속에서 행동하며 인과관계를 맺고 이들 인과적 관계들은 독자의 '체험'을 거치며 다층적 의미망을 형성한다. 『김약국의 딸들』은 조선의 개항기와 한일합방, 식민시기를 아우르는 60여 년의 시간 속에서 한 가문의 쇠락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비극성은 서사적 시간과 공간의 상관 관계의 규명을 통해 밝혀볼 수 있다

2. 시간의 停滯로 인한 의식의 지체

『김약국의 딸들』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60여 년 동안 가족 3대의 이야기가 파란만장하게 펼쳐지지만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는 1장에 집중되어 있고, 다섯 딸들의 결혼, 추문, 광기, 죽음 등의 서사는

10) 리쾨르의 시간은 역사성과 허구성의 특성을 모두 가진 시간이다.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들의 복잡한 관계를 가능한 한 인과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자신의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일종의 이야기 구성에 의해 역사를 서술한다. 반대로 문학의 경우, 인간의 실제 삶을 모방하여 허구의 삶을 창조해 내지만 그 속에서 인물들은 시공간 속, 즉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인 것처럼 그려진다. 그러므로 역사와 문학은 모두 이야기성과 허구성을 모두 갖게 된다.

11) 폴 리쾨르, 김한식,임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2』, 문학과지성사, 2013, 166면.

www.kci.go.kr

2장부터 6장에 걸쳐 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1장에 60여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고, 서사의 주축이 되는 딸들의 시간(대략 2~3년 정도)은 2장에서 6장까지 전개되어 이야기와 시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각 장은 여러 개의 절들로 나뉘어 소제목들이 붙어 있다. 제1장은 '통영-비명-지석원-송씨의 심정-도깨비 집-혼례-봉제 영감의 죽음-오던 길을-꽃상여-송씨'로, 총 10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지만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김약국집의 비극의 원인이 된 할아버지 세대의 비극이고 둘째는 아버지 세대인 어린 성수가 '김약국'이라는 고독한 가부장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소제목으로 보면 '통영-비명'이 전자에 해당하고 '지석원-송씨의 심정-도깨비 집-혼례-봉재 영감의 죽음-오던 길을-꽃상여-송씨'는 후자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김약국의 딸들』의 첫 시작은 통영에 대한 소개이다. 통영이라는 공간에 대한 소개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서술을 사이에 두고 전개된다.

작품은 '통영(지금은 충무시)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로 시작한다. '나폴리'는 이탈리아의 美港이다. '나폴리'가 조선에 소개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영의 젊은이들이 모두 '나폴리'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개항기'는 아닐 것이다. 통영의 소개에서 보이는 서술자의 시간은 뒤이은 연대기적 시간과 괴리를 일으킨다.

통영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시대적 배경이 제시된다.

> 1864년 고종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그의 아버지 대원군은 집권하였다. 그러나 병인양요를 겪고 극도에 달한 경제적 파탄으로 드디어 대원군은 그 패권을 민비에게 빼앗겼다. 정권이 민씨 일파로 넘어간 후에도 여전히 나라 안은 소연하였다. 청·일 두 세력의 대립, 민씨파와 대원군과의 암투, 개화파와 보수파와의 갈등, 개화파 중에서도 일본식으로 따르자는 친일파, 청국식으로 따르자는 사대파, 이러한 파벌의 발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국운은 차츰 기울어져만 갔다.[12]

www.kci.go.kr

위와 같은 서술에서 작품의 배경이 개항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항기의 조선은 70년간 이어져 오던 외척들을 몰아내고 대원군이 정권을 잡으며, 권력싸움이 치열하였다.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외세의 힘을 빌게 되고 이로 인해 정국은 더욱 혼란해지던 시대였다. 통영이라는 실재 공간, 그리고 역사적 시간의 역동성은 일반적으로 작품의 사실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진 통영의 공간 묘사를 보면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된다. 통영에 대한 묘사는 세밀하게 진행된다. 통영의 동서남북을 파노라마식으로 묘사하는데 그 형상은 마치 웅덩이 같다. 통영은 '북쪽에 두루미 목만큼 좁은 육로를 빼면 통영 역시 섬과 별다름이 없이 사면이 바다이다.'(13면)

> 마지막으로 동헌 뒤켠으로 빠지는 북문, 이것만이 유일한 육로이다. 섬의 신세를 면한 길목이다. 토성골을 지나 붉은 황톳길인 장대고개를 넘어서 가을이면 통영의 지주들이 당나귀를 타고 그곳으로, 사천으로 추수를 거두어 가고, 봄이면 춘궁을 모면키 위하여 어촌의 아낙들이 마른 생선과 해초를 포대에다 꾸려서 이고 곡식 도붓길을 떠나는 슬픈 고개다. 장대고개에는 묘지가 있었다. 그리고 문둥이들이 떼거지를 지어 살고 있었다. (16-17면)

통영은 웅덩이 형상이다. 통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통영 안에 고여 있다. 정권다툼이 일어나건 외세의 침략이 있건 통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은 변하지 않는다. 화자는 통영이 예로부터 상업과 배금사상이 보급된 고장이라고 전술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작품의 서사가 진행되는 60여 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영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통영에서 일어나는 잉여는 통영 사람들에게 삶의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유일한 통로인 장대고개를 통해 빠져 나간다. 그래서 통영이 외부와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장대고개는 '슬픈 고개'다. 그 고개에는 썩은 물의 부유물 같은 문둥이들이 살고 있다. 고래로 문둥이들은 소외의 대상이자, 두려운 존재로 회피의 대상이다. 그런 문둥이들이 가로막고 있는 곳이 바로 통영의 출구이다.

---

12)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나남, 1993. 14면. 이하 면수만 기록.

www.kci.go.kr

이와 같은 통영에 대한 공간묘사는 매우 정적이다. 현재에서 과거로의 역전, 시대적 역동성과 대비되어 통영의 정적인 묘사는 '시간'의 '정체감(停滯感)'을 느끼게 한다. 시대적 역동성과 정적인 공간의 대비, 현재시간의 통영과 과거시간의 통영의 대비를 통해 이야기의 시간성은 흐려진다.

개항기의 역동적 시간성은 실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된 통영'과 간창골에 이르면 소멸한다. 외세에 의해 조선의 국운이 기울고 나라가 소란한 사이에 통영이라는 공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김봉제 형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치정살인 사건이다. 김봉제와 봉룡 형제는 통영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중인의 신분이지만 지방의 호족으로 가산도 풍족하여 불안한 시대적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야망없는 세월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 그중 동생인 봉룡은 역사성이 거세된 인물로 타고난 격한 성정과 막내아들로 귀하게 자란 탓에 '오만불손'한 인물이다. 그는 맞아서 골병들어 죽었을 거라는 소문이 도는 첫 번째 아내를 잃고 '숙정'과 재혼하여 첫 아들인 성수를 낳는다. 김약국의 부모세대의 이야기는 '통영'과 다음에 이어진 '비명'에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서술된다.

숙정을 연모하던 전 정혼자 '욱'이가 찾아오자, 봉룡은 이성을 잃고 아내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 매질을 하고 '욱'을 쫓아가 죽인다. 그 사이에 숙정은 비상을 먹고 죽는다. 이 사건은 김약국 집안의 원죄가 된다. 봉룡은 도망을 가서 타향에서 죽고, 졸지에 부모를 잃은 김약국(성수)는 고아가 되어 큰아버지인 봉제의 집에 맡겨진다.

아버지 세대인 김약국의 이야기 역시 시대적 상황의 제시로 시작한다.

> 십육 년 동안 세상도 많이 변하였다. 임오군란(壬午軍亂)에다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났고, 일본, 청국, 노국, 영국까지 각기 도마 위에 놓인 고깃덩이처럼 조선을 서로 먹겠다고 으르렁거렸다. 이런 외환에다 거듭되는 악정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란이 즉 동학란이다. (26면)

시간은 16년의 세월을 건너 뛰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지석원은 봉룡의 하인으로 봉룡 집안의 비극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다. '어디서 출생하였는지

www.kci.go.kr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지석원은 봉룡이 사라지자 자유민이 되어 떠돌다가 동학군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봉제집안에 얹혀살고 있다. 지석원에게도 시간이 흐르고 임오군란에 갑신정변을 경험하고, 동학군이 되어 세상의 격변을 체험했지만 지석원은 변하지 않는다. 돌아온 지석원은 동학사상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고, 식민지 현실에 대해 고민하지도 않는다. 공짜 술을 얻어먹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고 있다. 서사 속에서 지석원의 존재의미는 딸들 세대의 비극적 사건의 중심인물인 한돌이라는 존재의 알리바이다. 또한 16년의 세월 동안 통영 바깥의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 온 사람은 지석원 뿐인데 그런 지석원의 평면성은 역사적 사건과는 별개로 통영이라는 공간의 시간이 정체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서사적 장치이다.

'지석원'을 시작으로 아버지대인 성수의 이야기가 시작한다. 부모가 죽고 큰아버지 봉재영감 집에서 살고 있는 성수는 매우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봉재영감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성수는 가문의 후계자가 된다. 큰어머니인 송씨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병약한 딸 연순을 의지하면서 산다. 성수를 키워주기는 하지만 가문이 자신의 핏줄이 아닌 자에게 넘어간다는 사실과 죽은 숙정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불길함 때문에 성수를 멀리하고 괴롭힌다. 죽은 부모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성수를 '이상한 요물'로 만든다. 이로 인해 성수는 후계자이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되 사람이 아닌 '이상한 요물'로 도깨비집이라 불리는 봉룡의 집에 고착되어 있다.

연순은 송씨의 딸로 병약한 인물이다. 성수를 경계하고 괴롭히는 큰어머니 송씨를 대신해서 성수를 이해해 주는 인물이다. 성수를 배려해 주는 착한 마음의 소유자이나 병약한 연순은 '소인이며 무식꾼인' 강택진과 결혼함으로써 불행이 예견된 인물이기도 하다. 성수에게 연순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고 연인이다. 봉룡과 같은 노란 머리털을 가진 연순은 성수가 갖지 못한 아버지를 연상시키고 어머니처럼 성수를 포용하며, '동백기름'의 향기로 다가오는 연인이다.

연순과 송씨는 성수에게 모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숙정과 동일성을 갖는다. 성수에게 어머니 숙정은 그리움의 대상이자 자신을 '이상한 요물'로 만드

www.kci.go.kr

는 무서운 어머니이다. 연순은 그리운 어머니의 이미지로, 송씨는 무서운 어머니의 이미지로 어린 성수의 곁을 머물며 성수를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고착시킨다. 그러나 연순이 혼인을 함으로써 성수 곁에게는 무서운 어머니만 남는다. 또 한 번의 어머니 상실이다.

객관적 시간에 대한 환기는 연순과 강택진이 '혼례'를 올리는 장면에서 다시 한 번 이루어진다. 연순과 결혼하는 강택진은 양반의 자손으로 허우대는 멀쩡하나 부모도 없고 가산도 없이 여인들에게 기생하며 먹고 사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 병약한 연순을 혼인시키기 위해 명색이 양반인 강택진이 선택된다. 강택진은 기생 옥화와의 사이에 아들까지 낳았지만 옥화를 배신하고 연순과 혼인을 한다. 연순의 혼례가 끝난 뒤 마을사람들은 갯가 선술집에 모여 지나가던 서양배를 보며 대화를 나눈다.

> 검은 배는 연기를 물씬물씬 뿜으며 수평선 밖으로 사라졌다. 갯가에 모여든 사람들이 흩어진다.
> "나라 꼴 조오타. 기가 막히제. 대원군 시절에는 어림이나 있었나, 얼씬이나 해? 아암, 얼씬도 못했고 말고."
> "중구난방이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니라. 조개 황새 싸움발에 남 좋은 일 시키제, 흥."
> 작년에 왜놈에게 살해당한 민비에 대한 비난이다.
> "또 민란이 날 기다. 뭍에서는 게기 한 마리 안 나고 보리 농사도 망치고 이리 시수가 분분하니."
> "양곡이나 좀 풀어놓지."
> "흥, 무슨 수로? 설사 풀어놔도 우리네들한테 쌀 한톨이 오겠나? 백사장이 돼봐라, 보리 한 섬 풀겠나. 이러나 저러나 우리네 살기야 마찬가지제." (49면)

『김약국의 딸들』 전편에 걸쳐 객관적 시간의 제시는 사실성 확보를 위한 서사적 장치로써 서술자의 몫이다. 등장인물에 의해 객관적 시간이 드러나는 경우는 두 장면[13]이다. 연순의 혼례식은 만인의 축복에 의해 이루어진 혼례

13) 다른 한 장면은 제3장의 '실종'에서 나타난다. 김약국은 무리하게 모구리 어장을 하는데, 제주도로 떠난 배가 풍랑으로 실종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약국 집안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게 된다. 김약국의 이종사촌인

www.kci.go.kr

는 아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순의 병약함을 들어 “구신이 어깨 너머서 연방 늘름”거린다는 둥, 작부 덕분에 입에 풀칠하던 장택진이 김약국의 사위가 된 것은 “팔자 고친 일”이라고 연방 수군댄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혼례의 상징성은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와 갯가 선술집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 훼손된다. 통영 밖의 실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통영에 오면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진다. 외세의 침략과 국모의 죽음이라는 객관적 사건이 여담[14]의 형식으로 서술되고, 역사의 격랑과 대비되는 연순의 혼례식이 여상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의 혼재는 서사적 시간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정체감을 형성한다.

다음에 이어진 ‘봉제영감의 죽음’은 성수(김약국)를 완전한 외톨이로 만든다. 마음 속의 부모이자 연인이었던 연순이 결혼하고, 유일하게 성수를 아껴주던 큰아버지 봉제영감이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자 큰어머니 송씨는 사위인 강택진에게 관약국을 물려주려 한다. 고모 봉희의 도움으로 성수가 약국을 물려받았지만 성수의 외로움은 점점 깊어져 간다. 오래간만에 누이 연순을 만난 성수는 통영을 떠나려고 한다. 하지만 통영의 관문 북문고개에서 쫓아 온 송씨와 강택진에게 잡힌다. 강택진은 성수가 가져간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쫓아 온 것이지만 송씨는 대를 이을 후계자에 대한 애착과 기른 정을 깨닫고 성수를 붙잡는다. 성수는 ‘오던 길을’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통영이라는 갇힌 공간을 탈출하고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획득, 나아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돌아온 성수는 한실댁에게 장가를 들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아끼는

중구영감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일본에서 사상문제로 체포되었다가 돌아온 태윤과 의사인 형 정윤은 실종된 선원들의 보상문제를 시작으로 논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현실과 애국심에 대한 논의가 제시된다.

14) 여담은 본래 진행되던 이야기의 줄거리와 관계에 따라 메타담화적인 전략과 덩어리 전략이 나타날 수 있다. 전자는 그 전체가 진행 중인 이야기에 대한 논평, 주석으로 생산되는 여담으로서 줄거리에 대해 종속적이고 기생적인 것을 말하며, 후자는 플롯과 여담 사이에 연관성을 만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플롯과 무관한 자율적 여담 단위를 거칠게 삽입하여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것을 가리킨다.(Randa Sabry, 이충민 옮김, 『담화의 놀이들』, 새물결, 2003. 619-620면.)

www.kci.go.kr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숙정의 자살 이후 '이상한 요괴'로 불길한 존재로 살아가던 성수에게 마음 속에 간직한 모성의 대리자인 연순의 혼인과 큰아버지의 죽음은 모성을 다시 한 번 상실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모성을 갈구하던 어린 성수는 사라지고, 김약국이라는 가문의 후계자이자 고독한 가부장만 남는다.

한실댁에게 태기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연순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죽고 만다. 처가에 붙어서 치부하던 강택진이 장사에 돈을 안 들이려고 하자 연순의 주검은 성수가 마련한 '꽃상여'를 타고 '장대고개'를 넘어갔다.

제1장의 마지막은 '송씨'이다. 딸 연순이 죽고 사위의 탐욕을 알아챈 송씨는 성수의 첫 아들인 용환이를 애지중지 의지하며 기른다. 그러나 용환이 마마로 죽자, 반실성한 상태로 두 달 후에 죽는다.

> 그러나 두달 후 송씨는 죽었다. 죽을 무렵,
> "비상 묵은 자, 자손은 기리지 않는다카든데...."
> 하고 숨을 거뒀다.
> 성수가 서른둘 되는 해, 그러니까 1920년 8월 29일에 치욕적인 한일합병 조약이 발표되었다. 대한제국은 그 파란 많았던 운명의 종말을 드디어 고한 것이다. (70면)

송씨의 죽음으로 할아버지 세대는 종말을 고한다. 이 종말은 대한제국의 종말과 맞닿아 있다. 대한제국의 종말은 식민시대, 즉 새로운 고난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송씨의 죽음이 구세대로 '대한제국의 종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면 더 열악한 식민시대의 도래는 김약국의 딸들의 시대와 맥락을 같이 한다. 김약국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석원의 아들 한돌이 김약국집으로 들어오면서 제1장은 끝이 나는데,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무당의 아들, 한돌의 등장은 다가올 딸들 시대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약국집 딸들』의 서사적 시간은 일상적 시간과 근원적 시간[15]이 혼재되어 있다. 제1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시간체

15) 이동수,「하이데거 시간 개념의 정치적 함의」, 『철학과 현상학 연구』 14,

www.kci.go.kr

험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일상적 시간은 60여 년이 흘렀지만 김약국과 딸들의 시간은 숙정이 비상 먹고 죽던 그때와 같이 격정과 폭력, 삶의 비애가 가득한 동일한 시간, 즉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으로서의 존재론적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비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16년의 시간 뒤에도, 다시 20년이 흐른 뒤에도 현재의 관점에서 작동한다. 물리적 시간은 60여 년이 흘렀지만 서사적 시간의 정체(停滯)는 인물들의 의식의 지체(遲滯)로 이어진다.

결국 제1장에서 두드러진 시간성의 서술은 오히려 흐르지 않는 '서사적 시간'과의 괴리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이러한 '서사적 시간'의 停滯性의 체험은 공간의 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3. 관계맺기의 실패와 무장소성

『김약국의 딸들』의 '서사적 시간'의 停滯는 공간의 '재형상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간의 재형상화는 경험주체의 장소감과 관련되어 있다. 시간의 정체로 인해 아버지의 비극은 다시 딸들에게로 유전되고, 통영은 용숙, 용빈, 용란, 용옥, 용혜, 다섯 딸들에게 몰락의 장소, 광기의 장소, 죽음의 장소로서 장소애를 형성하지 못한다. 장소란 추상적이며 개방적인 공간과 대비되는 경험주체의 구체적이며 친밀한 관계맺음 속에서 결정된다. 이를 장소감 혹은 장소애라고도 말하며 이러한 장소감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장소에 대한 진정한 장소성을 갖지 못했을 때 장소 소외감을 갖게 되는데 이를 무장소성이라 한다.[16]

1999. 10, 250-251면. 하이데거는 시간이 존재의 이해를 위한 지평이며, 일상적(ordinary) 시간과 근원적(original) 시간으로 구분한다. 일상적 시간이란 우리의 존재자적 삶 속에서 현 순간들(now-points)의 연속으로 이해되는 시계적인 시간이고, 근원적 시간은 현존재가 세계에 존재론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간으로서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www.kci.go.kr

통영의 무장소성은 먼저 공간의 아이러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통영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물산이 풍부한 고장이다. 어업이 발달하여 해산물이 풍부하고, 항구가 번영하여 '주민들의 기질도 진취적이며 모험심'이 강한 고장이다. 이로 인해 '다른 산골 지방보다 봉건제도가 일찍 무너지고 활동의 자유, 배금사상이 보급'된 지방으로 조선의 다른 지역에 비해 근대화가 일찍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약국의 딸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 없다. '옥화할매'와 그 자손의 삶, 모구리 어장에서 일하는 '젓꾼'들의 삶은 척박하기 그지없다.[17] 공간의 '풍요'는 삶의 '풍요'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형성한다.

자연 또한 아이러니하다. 서사적 시간 속의 자연은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곳에서만 풍요롭다. 통영과 육지를 잇는 단 하나의 통로인 북쪽 장대고개에 모여 사는 문둥이들이 고구마, 감자, 배추, 호박 등을 심어 장사치들에게 몰래 넘겨주는데, 그 고구마와 감자가 유별나게 크게 자란다. 예로부터 문둥병은 天刑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원죄의식이 깃든 문둥이의 대지에 유난히 풍요로운 자연은 통영이라는 서사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의 질곡과 대비된다. 성수의 옛 집인 '도깨비집'도 풍요의 대지이다.

>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밝은 대낮에도 도깨비집 대청에 곱게 단장한 숙정이 다듬이질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며, 칼 맞아 죽은 나그네와 함께 뜰 안을 쏘다니더라는 것이다. 아낙들은 아이가 보채기만 해도 도깨비집에 가자고 으르대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도깨비집에도 철따라 살구꽃이 피고 앵두꽃이 피

16) 에드워드 랄프, 김덕현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이푸-투안, 정영철 역, 『공간과 장소』, 태림출판사, 1995. 참조.

17) 어장막을 향하여 웅기중기 모여 가던 젓꾼들은 눈을 비비며 소리친다. 솜을 두껍게 두어 듬성듬성 손으로 누빈 바지와 저고리, 그 저고리의 기장이 길어서 반두루마기 같은데, 허리끈을 질끈 매어서 마치 유도복만 같다. 온통 낡고 때가 묻어서 마치 비렁뱅이들의 행렬만 같았다. (131면)
아이는 땅바닥에 일어나 앉아 어어엉 하고 가는 울음을 뽑고 있었다. 걸레처럼 헤어지고 옷이랄 것도 없는 것을 걸친 아이는 배가 불룩 솟아 있고, 팔 다리는 꼬챙이처럼 가늘어 손만 대면 뽀도독하고 부러질 것만 같았다. (245면)

www.kci.go.kr

었다. 봄, 여름에는 앵두, 살구, 석류가 열렸다. 아이들은 도깨비집에 대한 무서움보다 그 소담스런 과실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낀다. 무너진 돌담 사이를 두꺼비처럼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서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는 과실을 따내는 것이다. (25면)

살인과 광기로 얼룩진 '도깨비집'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저주받은 공간의 풍요로움은 더 '그윽하게'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처럼 소외와 회피의 공간에서 자연은 자애롭고 풍요로운 반면에 '치열한 삶의 공간'에서는 가혹하기 그지없다. 김약국집의 부의 원천인 대구어장이 쇠락한 이유도 아이러니하다. '우물가에도 살얼음이 얼었다면 그 고장에서는 가장 추운 날이다. 그러나 바다는 잔잔하고 한낮이 되면 햇볕은 따사로와 진다'(123면) 바닷물이 차가워야 대구어장에 대구가 많이 모인다. 그러나 육지는 최고로 추워진 반면 바닷물은 따뜻하다. 모구리 배(남해환)가 실종된 것도, 용옥이 탄 여객선이 침몰한 것도 아이러니하다. '큰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마치 구신에 홀린 것처럼' 남해환이 실종되고, 용옥이 탄 배도 '바람도 안 불었는데' 침몰하고 만 것이다. 처절한 삶을 한가운데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유독 가혹한 자연은 통영이라는 공간의 아이러니를 형성한다.

가장 주목해야 할 '풍요'는 김약국의 다섯 딸이다. 김약국의 어머니인 숙정의 죽음으로 김약국 집안에는 '비상 묵은 자, 자손은 기리지 않는다'는 저주가 깃들게 된다. 전통적 유교사회에서 가문이 아들을 통해 이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가문의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자손이 끊어진다는 말과 같다. 즉, 표면적으로는 '비상 묵은 자, 자손은 기지지 않는다'는 저주가 완성된 듯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로소 김약국집은 다섯 딸들과 어머니의 대지, 즉 여성적 공간이 된다. 고래로 여성은 풍요와 생산의 상징이다. 이러한 여성, 즉 딸을 다섯이나 낳았다는 사실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불모성과 대비되어 아이러니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아이러니로 가득한 통영이라는 공간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물들에게는 두렵고, 가혹하며, 무서운 장소가 된다.

앞에서 『김약국의 딸들』의 전진적인 시간은 제1장에 압축되어 60년에 걸

www.kci.go.kr

친 삼대의 가족 서사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서술 기법에 의해 역사적 사건은 '서사적 시간'의 객관성을 소멸시키고 정체감(停滯感)을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서술의 순서에 따른 서사시간의 변화는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느냐, 과거를 회상하며 서술하느냐, 아니면 현재와 과거, 미래의 사건들을 섞어서 서술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그렇게 본다면『김약국집의 딸들』은 전진적인 시간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진적 시간(process time) 구조는 사건들이 결말로 가면서 그 의미의 중요성을 더해가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이다. 이 시간 구조 속에서 등장인물은 사건의 진행과정과 인과율에 따라 정신이 성숙해 가는 특징을 지닌다. 히그던은 여기에 이 시간구조가 결말에 이를수록 현실세계가 새롭게 인식되고 지각되는 구조를 지니게 된다고 덧붙였다.[18] 그러나『김약국의 딸들』의 시간구조는 연대기적이기는 하나 사건의 진행과정과 그 인과가 인물들의 정신을 성숙시키는 구조는 아니다. 앞에서 설펴본 바와 같이 작품 속의 통영이라는 공간에서 시간성은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약국집의 비극은 언제나 현재성을 띈다. 집안의 비극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용빈의 절규는 그것을 분명히 한다.

> "저의 아버지는 고아로 자라셨어요. 할머니는 자살을 하고 할아버지는 살인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는 딸을 다섯 두셨어요. 큰딸은 과부, 그리고 영아살해혐의로 경찰서까지 다녀왔어요. 저는 노처녀구요. 다음 동생이 발광했어요. 집에서 키운 머슴을 사랑했죠. 그것은 허용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반대했으니까요. 그는 처녀가 아니라는 험 때문에 아편장이 부자 아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결국 그 아편장이 남편은 어머니와 그 머슴을 도끼로 찍었습니다. 그 가엾은 동생은 미치광이가 됐죠. 다음 동생이 이번에 죽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381면)

18) 정재석, 「현대소설의 시간구조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17면. 정재석은 D. L. Higdon의 개념을 차용하여 현대소설의 시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서사시간을 사건의 서술순서에 따라 전진적 시간 구조(process time), 역진적 시간 구조(retrospective time), 복합적 시간 구조(polytemporal)의 세 층위로 설정한다.

www.kci.go.kr

용빈은 60년에 걸친 집안의 비극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할머니의 자살 - 할아버지의 살인 - 용숙의 영아살해 추문 - 용란의 광기 - 한실댁의 죽음 - 한돌의 죽음 - 용옥의 죽음은 모두 한 줄기로 이어져 '김약국집의 비극'으로 압축된다. '김약국집의 비극은 광기와 죽음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하고 서로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현재적이다.

비극의 표면적인 이유는 사랑과 욕망이다. 봉룡의 과격한 성격에 낳은 오해는 숙정과 욱을 불륜관계로 규정짓고, 그로 인해 죽음이 발생한다. 그 결과 그 아들 성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핍된 인물로 자라난다. 인간의 성숙에 필요한 적절한 '관계맺기'를 하지 못한 성수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 성수는 연순을 연모한다. 그러나 연순은 성수와 사촌이므로 애초에 비극은 내재되어 있다. 예측한 바대로 유일한 가족이자 연인인 연순과 맺어지지 못하자 성수는 자기를 상실하고 김씨 약국집의 후계자인 김약국으로만 살아간다. 김약국은 부모와 관계맺기 불가능한 존재조건 속에서 자라왔다. 그는 어떻게 관계맺기를 해야 하는지 배우지도 못했다. 부모-자식의 관계맺기에 실패한 그는 다섯 딸들과 관계맺기 역시 실패한다. 결국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맺기의 불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와 관계맺기에 실패한 딸들 역시 비극적 운명에 처한다. 첫째 딸 용숙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바랐지만 김약국은 용숙을 멀리한다. 용숙은 혼인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욕망하였으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됨으로써 그 꿈은 좌절된다. 이후 그녀의 욕망은 '성'으로 옮아가는 듯했으나 불륜관계와 '영아살해사건'이라는 추문 이후 '돈'에 고착된다. 가부장적 신분질서가 붕괴된 이후 돈은 새로운 가치추구의 대상이다. 돈을 통해 용숙은 스스로 가부장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다섯 딸 중 가장 아름다운 셋째 용란은 공허하다. 어머니의 응석쟁이 딸로 어린 아이 같은 맹목성을 보이고 있다. 머슴 한돌과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밝혀졌을 때도, 그리고 한돌이 사라졌을 때도 용란은 고뇌하지 않는다. 오로지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처럼 반응한다. 본능적 쾌락의 추구가 용란의 삶의 원동력이다. 한돌과의 관계로 인해 약쟁이 연학에게 시집가고, 그 연학

www.kci.go.kr

에게 학대를 당할 때에도 용란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오로지 어머니에게 의지할 뿐이다. 용란이 한돌을 사랑했다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어머니와 한돌 모두를 잃은 용란은 미쳐 버린다.

용란이 아이같은 본능으로 내면이 텅 비어 있다면 넷째 딸, 용옥의 비극은 과도한 '모성성'에서 비롯된다. 용옥은 '돌봄'이라는 여성적 특질을 갖고 있다. 용옥은 어머니 한실댁을 보좌하며 가족을 돌보고, 용란을 사랑했던 '서기두'와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가족'(김약국집의 가족과 서기두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남편 서기두에게 외면당한 용옥의 여성성은 시아버지 서영감의 탐욕의 대상이 된다. 결국 용옥은 서영감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죽게 된다. 아이를 껴안고 '이상하게도 말짱하게' 인양된 용옥의 신비로운 죽음은 이러한 위대한 모성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의 용옥은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려 했지만 결국 죽게 되는 패배자의 형상이다. 이처럼 용숙과 용란, 용옥은 모두 관계맺기에 실패한 끝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둘째 딸 용빈은 또 다른 가능성을 내포한 인물이다. 다섯 딸들 중 용빈은 가장 남성적인 인물이다. 우선 외모부터 용란의 아름다움과 대비되어 이지적이다. 어머니와 친밀했던 다른 딸들에 비해 아버지(김약국)와의 가까웠고, 집안의 아들로 대우받았다. 이러한 남성적 자질로 인해 약혼자의 배신이라는 아픔을 겪는다. 경성에서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용빈은 이러한 배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강국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만난다. 용빈의 삶은 통영이라는 공간 밖에서 이루어진다. 통영의 안과 밖의 이러한 대비는 관계맺기가 불가능한 장소로 비극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는 통영의 무장소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통영이라는 공간 안에서 김약국집의 사람들은 쇠락을 거듭해 왔다. 그들에게 통영은 안전한 곳도 친밀한 곳도 아니다. 통영이라는 공간은 김약국집의 사람들에게 관계맺기가 불가능한 불모의 장소가 된다. 6장의 마지막은 '출발'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다. '출발'은 용빈과 막내딸인 용혜가 통영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불모의 장소인 통영을 떠나 새로운 세계

www.kci.go.kr

로의 출발,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가능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약국의 딸들』의 비극성의 실체는 '관계맺기'의 실패이다. 관계맺기의 실패로 인한 비극성은 박경리의 작품에 되풀이해서 나타난다. 『시장과 전장』의 지영, 『표류도』의 현희, 『토지』의 서희 등 박경리 작품의 많은 여성 주인공들은 관계맺기에 실패하고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인간에게 '관계'는 필수이다. 관계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에게 '관계맺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근원적 문제이다. 박경리는 본질적 존재로서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김약국의 딸들』을 통해 독자에게 던진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박경리 문학에 나타나는 비극성의 원인을 찾기 위해 『김약국의 딸들』의 시간과 공간을 살펴보았다. 『김약국의 딸들』은 60년 3대 가족사가 연대기적으로 펼쳐지는 가족사 소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서술은 제1장에 압축되어 있다. 제1장에는 3대 가족 중에 할머니대인 숙정과 아버지대인 김약국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그 60여 년의 시간이 서술된다. 반면 제2장부터 제6장까지는 다섯 딸들의 비극과 그로 인해 김약국집이 몰락하는 2~3년의 시간이 현재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시간의 불균형은 주서사인 딸들의 비극과 아버지(김약국)의 비극적 삶의 동질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김약국의 딸들』의 시간이 정체(停滯)되어 있고, 이러한 시간의 정체는 인물들의 의식을 지체시킨다는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간의 停滯性은 통영이라는 실제의 공간을 관계맺기가 불가능한 불모의 장소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장소의 불모성은 아이러니를 통해 드러난다. 통영의 자연은 장대고개나 도깨비 집 같이 인간에게 소외된 곳에는 풍요를 선사한다. 반면에 김약국 '집', 바다 등 등장인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장소는 혹독하고 불모성을 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장소인 통영은 김약국에

www.kci.go.kr

게는 벗어나고 싶었으나 벗어날 수 없었던 곳, 그래서 스스로를 가두고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장소이다. 한편 다섯 딸들에게 통영은 부성이 상실된 곳, 그로인해 모성, 부부간의 사랑, 남녀 간의 애욕 등 모든 관계맺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포의 장소이다.

추상적인 공간과 대비되는 경험주체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이고 친밀한 관계맺음 속에서의 장소체험을 장소성 혹은 장소애라고 하고, 이러한 장소애을 갖지 못하고 장소 소외감을 갖게 될 때 경험주체는 무장소성을 갖게 된다. 김약국집의 다섯 딸들에게 통영이라는 장소는 관계맺기에 실패하고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되는 비극적 공간으로 장소성을 상실한다. 통영을 떠나는 용빈과 용혜의 새로운 '출발'은 이러한 통영의 무장소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박경리 문학의 비극성을 형성하는 근원은 '관계맺기'의 실패에 있다. 이를 통해 박경리는 본질적인 인간의 존재적 조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질문이자 동시에 대답인 셈이다. 질문은 항상 내부에 대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예니,「박경리 소설의 비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김은철,「박경리 시의 내면풍경」,『한국문예비평연구』45, 2014.

김정희,「박경리의 『토지』연구-공동체의 형성과 해체양상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김한식,「이야기, 삶, 주체-자기의 해석학을 위하여」,『프랑스학연구』25.

유임하,「현대소설의 시간의 관련양상에 대하여」, 『한국어문학 논문집』 14, 1988.

이동수,「하이데거 시간 개념의 정치적 함의」, 『철학과현상학연구』 14, 1999. 10.

장미영,「박경리 1960.70년대 장편소설 연구」,『여성문학연구』26, 2011.

정재석,「현대소설의 시간구조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최은영,「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장소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7, 2014.

베레나 카스트, 이수연 옮김,『콤플렉스의 탄생:어머니 콤플렉스, 아버지콤플렉스』, 푸르메, 2014.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이푸-투안, 정영철 역, 『공간과 장소』, 태림출판사, 1995.

폴 리쾨르, 김한식 옮김,『시간과 이야기』1, 2, 3., 문학과지성사, 2015.

www.kci.go.kr

【Abstracts】

The study on the correlation of time and space in『Daughters of Kim's pharmacy』

Yoo Su-yeon

Time and space in the narrative is critical. People in space and time behavior and enter into a relation, these causal relationships form the multiple meanings network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reader. 『Daughters of Kim's pharmacy』 is a narrative about the rise and fail of the family in 60 years time leading to after opening a port and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occupation of Korea. Nevertheless, it's major factors in their only space epic and analysis about narrative of 『daughters of Kim's pharmacy』 looks like.

The space and the characters were mobilized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work, and now were left with the problem of time.

How does an individual recognize the space and time in which he has existed? We 'talk about' time(day) in our language, and the time of our talk is 'the time' registered in our memory and selectively, not all objective time. So, Paul Ricoeur tried to identify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within the narrative. In other words, it must be his story analytics to comprehend how the fragmented and distributed time of human is incorporated into one identity. We identify, he argued, our lives by the time involving its fabrication and historicity, and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recognition attitude on life, especially with

www.kci.go.kr

regard time.

『Daughters of Kim's pharmacy』 is a fiction about family history showing the family history of three generations over the sixty years based on their age. However, it doesn't make us feel the flow of time. Also, the time narrative in the work is summarized in the first chapter. After revied by the concept of 'narrative time', the meaning of time must be stagnant. This stagnant time delays the objective time of sixty years from the past to the current to the future into the current time, to form the placeness of the actual space Tongyeong

Human geography appeared as a result of the recognized limitations of the study of space is symbolic and abstract. It is separate space and a place. Space is free and open space abstract and undifferentiated. But the place would have given valuable experience to the subject. Concrete and has a mutual characteristics.. Time is stagnant in Tongyeong, it will be lost of place to the family of kimyakkuk.

Humans form an identity through relationships they hold. During childhood, children are tied by birth to their mother, brothers, friends, work-mates, meanwhile forming a self-identity in maintaining these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colleagues. That's part of growth and development. But the place is called Tongyeong, it is impossible to bear such a relationship. kimyakkuk and his father was severance of relations. that is made it impossible to form an identity as a father, and eventually failed also bear relationship of father and daughters. The tragedy of the daughters of kimyakkuk starts here. But yongbin and yonghye leaving Tongyrong has the possibility of entering into a new kind of relationship.

Key words : Park kyoung-ri, 『Daughters of Kim's pharmacy』, time, narrative time, stagnant time, space, place, placeless-ness

www.kci.go.kr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

www.kci.go.kr